

[로스쿨 소식]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관례연구’ 개정관 마무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지난 2022년 12월 착수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관례연구 개정관’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관례 선정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례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7개 주요 과목의 표준관례를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자체 예산 1억원 이상을 투입해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화를 위한 표준관례연구’를 진행해왔다.

2020년 ▲민법 표준관례(830선) ▲형법 표준관례(543선) 초판을 선보였고, 2021년엔 ▲헌법 표준관례(334선) ▲행정법 표준관례(459선) ▲민사소송법 표준관례(419선) ▲상법 표준관례(479선) ▲형사소송법 표준관례(396선) 등을 공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에 표준관례연구를 의뢰했다. 각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교수들이 참여해 엄선된 표준관례(▲쟁점 ▲결정 요지 ▲선정 이유 등)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개정관 표준관례연구는 협의회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진행됐다. ▲민법표준관례(930선) ▲형사소송법 표준관례(416선) ▲상법표준관례(516선) ▲형법표준관례(498선)으로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관례 등을 보완했다.

▲민사소송법 표준판례 ▲헌법 표준판례 ▲  
행정법 표준판례는 연구진의 최종 검토 후 이  
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표준판례 내에  
서 법무부주관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표준판례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  
회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판례를 문제로  
출제해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교육  
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에 따라 마  
땅히 국가의 책무로 재정지원 등을 하도록 되  
어 있는데 표준판례연구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진행했다.”며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15주년을 맞이했지  
만,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여전  
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표준판례 연구 결과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  
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  
leet.or.kr) 자료실-자료집에서 공개하고 있  
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 창간한 인터넷신문인  
로스쿨타임즈(lawschooltimes.com)에서도  
매주 화요일 민법표준판례, 수요일에는 형법  
표준판례를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표준판례연구를 토대로 변호사시험이 기본  
적인 법리,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  
길 기대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